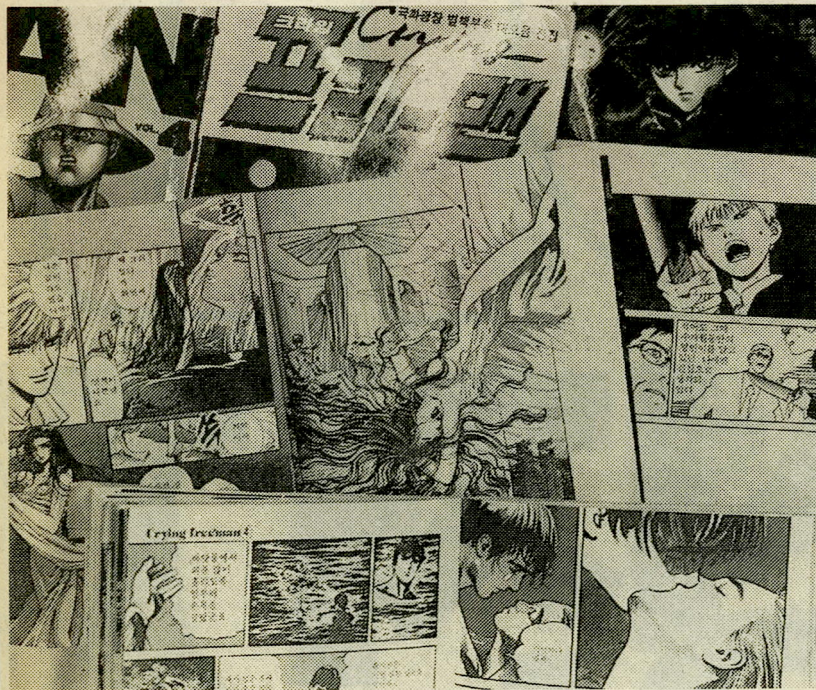


日本 폭력만화 복제 "철폐"

검찰, 대량제작 3명 첫 구속



◇패륜의 「온상」 제작자가 검찰에 구속된 폭력-음란 일본만화 복제본들.

“엽기적 살인·동성애 장면 청소년들 패륜범죄 원인”

폭력·음란 내용의 일본 만화복제해 시중에 공급해온 제작업자들이 검찰에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 1부(李珪在부장검사)는 31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거쳐지 않은 일본만화를 무단 복제한 뒤 판의 불법화를 시중에

만화대본소(만화가계)와 서점등에 모두 2만2천여 권을 팔아온 오조출판사 대표 朴興烈씨(36·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등 출판사 대표 3명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그동안 검찰이 1백권 안팎의 불법만화를 시중에

팔아온 영세 판매업자들을 단속, 별관청의 처벌을 한 적은 간혹 있어왔으나 검찰이 직접 나서 만화 제작자를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폭력·음란 매체들이

출판한 중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고 1천부 이상 폭력·음란 만화를 제작하는 출판업자들은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지검 북부지청 2가1 오조출판사 등 출판사에 어머니를 살해하는 장면, 동성간의 성애 장면, 엽기적인 살인 장면 등이 담긴 일본만화 「면도」, 「크라이프리맨」, 「엑스」 등을 그대로 번역해 각각 2

천권씩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크라이프리맨」은 낯으로 사람을 찌르는 장면, 여자끼리 애무하는 장면 등을 「면도」는 칼로 동맥을 끊고 자살하려는 아들이 이를 말리려는 어머니를 칼로 찌른 살해하는 장면 등을 끔찍한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담아 충격을 주고 있다.